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2 | 인간 문제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인간 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출제된단다. 특히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



아, 그렇다면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지주인 덕호와 농민들의 대립 구도, 그리고 덕호의 결과 속이 다른 행동을 잘 파악해두어야 하겠네요.

맞아. 덕호의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 겉으로는 농민들을 '친자식'처럼 아낀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는 위선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열쇠란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문 앞부분에서 농민들이 '술에 취한 듯이 흥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요. 뒤에 보면 결국 다 뺏길 텐데 왜 그렇게 좋아하나요? 헛갈려요.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장면이지. '나락 더미'와 '벼알 소리'는 농민들에게 일 년 농사의 결실을 확인하는 순간의 원초적인 기쁨과 기대를 줘. 작가는 청각적인 묘사를 통해 타작마당의 흥분된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지만, 곧이어 '회계'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는 현실을 제시해서 그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어. 즉, '수확의 기쁨' 뒤에 오는 '수탈의 허탈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돼.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2 | 인간 문제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해가 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네 **마당질**(곡식을 떨어 알곡을 거두는 일. 타작(打作)과 함께 쓰이던 농사 용어)은 끝이 났다. 어둠 속으로 뿌옇게 솟아오른 **나락 더미**(쌀가마를 쌓아 만든 더미)!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슬에 취한 듯이 흥분이 되어 있었다.**(수확한 벼 앞에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는 농민들.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 서방과 **덕호**(마을 지주)가 나왔다. 유 서방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 가지고 나왔다. 땃버리는 대두를 들고 나락 더미 앞으로 가서 나락을 손으로 헤쳐 가면서 말을 되었다.

“한 말이요는 가서요우.”

땃버리는 그 동글동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 가지고 소리 곡조로 마디마디를 꺾어 돌렸다.(땃버리는 구성진 목소리로 수확량을 알리며 타작마당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뒤미처 삐르르 하고 섬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벼알 소리! 그들의 가슴은 어떤 충동으로 스르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의식 간에 그들은 눈을 썩, 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며 바짝바짝 다가들었다.**(총 수확량이 몇 섬이나 될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안고 모여듦.) 그때마다 옆의 동무는,

“이 사람아, 넘어지겠구먼!”

허허 웃으며,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한 섬, 두 섬, 석 섬, 벅섬은 차례로 묶여 놓인다. 그들은 제각기 몇 섬이 날까? 하는 호기심에 묶어 놓은 벅섬과 나락 더미를 번갈아 비교해 보았다.

땃버리가 마지막 말수를 되어 벅섬에 부으며,

“열닷 섬 닷 말이요는 가서요우.”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르려는 듯이 그렇게 흥이 나서 음성을 내뿐었다.

“열닷 섬 닷 말! 잘은 났다!”

가슴을 즐기고 섰던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땃버리는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개똥의 어깨를 탁 쳤다.

“이 사람아 한턱내야 되리. 올 농사는 자네네만큼 된 사람이 없으리!”

“암, 허허.”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흘금 덕호를 쳐다보았다. 덕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가 가만히 섰는 것을 보아 만족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곡식이 잘 나지 못한 때면 덕호는 잔걱정을 하며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잘 거두지를 못하였느니 **미리 벼다가 먹었느니 하고 야단을 치곤 하였던 것이다.**(덕호는 농민들이 곡식을 남몰래 빼돌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했었음.)

유 서방은 구루마를 갖다 대고 벅섬을 광광 실었다. 그들도 벅섬을 받들어 올려놓으며,

“무겁다! 참 벼 한 섬이 이다지도 무거운가!”

덕호가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였다. 덕호는 어둠속으로 꺾련만 뽁뽁 빨면서 섰더니,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회계 끝내고 말지!(덕호는 타작을 마친 벅섬이 쌓여 있을 때 빛과 이자, 비룻값, 장리 빛을 계산하고자 함. 값야야 할 빛을 벅섬으로 환산하여 요구함.) 후일에 다시 쓰더라도…… 응? 자네 빛내 온 돈이 얼마인지?”

개똥의 말을 들어 보려고 덕호는 이렇게 물었다.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빛 말을 내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가**(개똥이는 타작날 '회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음.) 마침 이 말을

듣고 보니 전신의 맥이 탁 풀렸다.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던 **덕호는 저놈이 빛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벗섬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았다.**

(덕호는 개똥이의 반응을 보고 '회계'의 마무리를 서두르기로 마음먹음. **개똥이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지배 질서에 저항하여 승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네 15원 내 온 것이 간 정월달이 아닌가. 그러니 이달까지 꼭 열 달일세. 그래 이자까지 하면 20원이 넘네 그리. 우선 벼 닢 섬은 날 줘야 하네. 그래도 내가 삼사 원은 못 받는 속일세. 그러구 비룻값과 장리쌀은 으레이 여기서 회계할 것이지…….”

유 서방을 돌아보았다.

“어서 저기서 일곱 섬만 가져오게. 그래도 나는 10여 원을 받지 못하는 셈일세. 그러나 할 수 있는가. 자네들도 농사를 해 먹고 살아가야겠으니 우리에게로 오는 반 섬과 자네게로 가는 반 섬 합해서 한 섬은 내가 주는 것이니 그리 알게. 그것은 이번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 때문이여. 허허.”

유 서방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벗섬을 낚 하고 저다가 구루마에 실어 놓는다. [그들은 이제까지 깜박 잊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가 **조수(밀물과 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와 같이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다.]([]: 직유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표현함.) **그들은 벗섬단 위에 펄썩펄썩 주저앉았다.**(수확량을 확인한 당일에 절반 가까운 양을 뺏기게 되어 허탈감을 느끼고 의욕을 잃음. **이 행동을 두고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해 휴식을 취하려는 행동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가혹한 수탈을 당하는 대상이 나타나는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 [첫째의 머리에는 풍헌 영감의 모양이 획 떠오른다.

입도 차압(立稱差押)*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래윗동네를 미친 듯이 달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보게 이런 법이 있는가, 벼를 베기도 전에…….”

그다음 말은 막히어 하지 못하였다.(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고 당황한 풍헌 영감)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하여 풍헌의 뒤를 따라 논까지 가 보았다. 논귀에 세운 조그만 나무판자에는 무슨 글인지 써 있었다.

풍헌은 그 나무쪽을 가리키며,

“글쎄 집달리*라던가? 하는 양복쟁이가 이것을 꽃아 놓으면서, 벼를 베지 못한다구 허두먼…….”

풍헌은 이렇게 말하며 누룩누룩한 벼 이삭을 바라본다. 첫째는 다가서며,

“누구의 빛을 얼마나 졌습니까?”

“아 덕호의 빛이지. **그것 좀 차마 달라구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야 뭐 있겠나!**(생활고로 인해 빛 탕감 시기를 늦춰 달라는 풍헌 영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입도 차압을 한 덕호. 덕호의 몰인정한 면모가 드러남.) 전날 편지 배달부가 이런 것을 갖다가 주고 가두면. 그래 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고 두었더니, 글쎄 글쎄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누가 꿈밖에나 생각하였겠나.”

풍헌은 거지 안에서 다 해진 편지봉투를 꺼내어 보인다.(이 장면을 두고 '풍헌 영감이 편지봉투를 보여준 건 첫째가 글을 읽을 줄 알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거야'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시 그것을 한 자 알아볼 리가 없었다.**(글을 읽지 못하는 첫째) 그래서 편지봉투만 이리저리 만지다가 풍헌을 주었다.]([]: 풍헌 영감이 입도 차압을 당했던 일을 회상함. 해당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해 현재 개똥이 농사지은 벼를 빼앗기는 장면과 병치하여 몰인정한 지주의 횡포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이 부조리하며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가는 첫째의 모습을 형상화함.)

[중략 부분 줄거리] 타작마당에서 바로 벼를 빼앗기게 되어 억울했던 개똥이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첫째와 농민들이 몰려가 유 서방을 넘어뜨리고 실어 놓은 벗섬을 끌어내리지만, 곧 순사들이 들어닥쳐 그들을 **주재소(일제 강점기 당시 순사가 머무르며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로 끌고 간다. 개똥 어머니는 선처를 부탁하고자 덕호를 찾아간다.

개똥 어머니는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며,

“그저 한때 살려 줍시유, 네? 한때만 사정 봐줍슈.”

덕호는 기침을 하며 일어나서 자리로 몸을 가리고 앉았다.

“글쎄 그놈들의 행세를 보아서는 분 나는 대로 용서 없이 고생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소위 먼의 **어른**(어른)이라는 나로서 더구나 저런 늙은이들이 불쌍해서 그럴 수야 있는가.”

개똥 어머니는 너무 감격하여 소리쳐 울고 싶었다. 그리고 저런 후한 어른의 뜻을 몰라주는 개똥이와 그의 동무들이 끝없이 원망스러웠다.(덕호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은 개똥 어머니)

“그저 살려 줘슈. 저를 봐서…….”

“응. 그런데 마침 오늘이 공일이니까 면에 출근도 안 하니 내 직접 주재소에 가 보리…… 저희 놈들이 암만 그래도 몇십 년을 내 덕에 산 것이 아니겠나.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런 것을 두고 이름일세그러. 허 거정 **나두 손두 없는 사람이라 저희들을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어.**(겉으로는 농민들을 친자식처럼 여긴다고 말함. → 마을에서 선한 마을 어른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덕호의 모습이 드러남. ‘개똥 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자애로운 어른으로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잇속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덕호의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벼 한 섬을 거저 주지 않았나. 그런데 그놈이 그 은공을 몰라본단 말이어. 하필 올뿐인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왔지.”

“그까짓 죽일 놈들을 생각하실 게 있습니까. 그저 후하신 맘으로 이 늙은것을 한때 보아주셔야지우.”

“응. 그럼 돌아가게. 내 이따가 가 보리.”

개똥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경제적 약자로서 지주와의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농민들의 상황이 드러남.) **덕호는 도로 자리에 누우며 이놈들을 더 고생시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어 정신을 들려주었더니**(덕호가 주재소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날은 점점 추워 오고 어서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은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랄 수밖에 별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이 가을부터 **미곡**(쌀. 또는 쌀을 포함한 다른 곡식) 통제안(米穀統制案)이 실시된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곡가**(곡식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어서 바빠 그놈들의 빚도 현 곡가로 청산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곧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덕호는 타작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다고 판단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일꾼들의 석방을 요구하고자 함. 이 부분에 나타난 덕호의 심리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민들의 노동력과 빚 상환이 필요함을 계산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강경애, 「인간 문제」

* 입도 차압: 추수하기 전부터 벼를 압류함.

* 집달리: 집행관.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2 | 인간 문제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 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네 마당질은 끝이 났다. 어둠 속으로 뿌연게 솟아오른 나락 더미! ①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이 흥분이 되어 있었다.

유 서방과 덕호가 나왔다. 유 서방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 가지고 나왔다. 땃버리는 대두를 들고 나락더미 앞으로 가서 나락을 손으로 헤쳐 가면서 말을 되었다.

“한 말이요는 가세요우.”

땃버리는 그 둥글둥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 가지고 소리 곡조로 마디마디를 꺾어 돌렸다. 뒤미처 쉼표 하고 섬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벼알 소리! ② 그들의 가슴은 어떤 충동으로 스르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의식 간에 그들은 눈을 썩, 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며 바짝바짝 다가들었다. 그때마다 옆의 동무는,

“이 사람아, 넘어지겠구먼!”

허허 웃으며,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한 섬, 두 섬, 석 섬, 벼섬은 차례로 묶여 놓인다. 그들은 제각기 몇 섬이 날까? 하는 호기심에 묶여 놓은 벼섬과 나락 더미를 번갈아 비교해 보았다.

땃버리가 마지막 말수를 되어 벼섬에 부으며,
“열닷 섬 닷 말이요는 가세요우.”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르려는 듯이 그렇게 흥이 나서 음성을 내뿜었다.

“열닷 섬 닷 말! 잘은 났다!”

가슴을 졸이고 섰던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땃버리는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개똥의 어깨를 탁 쳤다.

“이 사람아 한턱내야 되리. 올 농사는 자네네만큼 된 사람이 없으리!”

“암, 허허.”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흘금 덕호를 쳐다보았다. 덕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가 가만히 섰는 것을 보아 만족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곡식이 잘 나지 못한 때면 덕호는 잔걱정을 하며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잘 거두지를 못하였느니 미리 베다가 먹었느니 하고 야단을 치곤 하였던 것이다.

유 서방은 구루마를 갖다 대고 벼섬을 광광 실었다. 그들도 벼섬을 받들어 올려놓으며,

“무겁다! 참 벼 한 섬이 이다지도 무거운가!”

덕호가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였다. 덕호는 어둠속으로 꺾어만 뻗뻗 빨면서 섰더니,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회계 끝내고 말지! 후일에 다시 쓰더라도…… 응? 자네 빛내 온 돈이 얼마인지?”

개똥의 말을 들어 보려고 덕호는 이렇게 물었다.

③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빛 말을 내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가 마침 이 말을 듣고 보니 전신의 맥이 탁 풀렸다.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던 덕호는 저놈이 빛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벼섬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았다.

“자네 15원 내 온 것이 간 정월달이 아닌가. 그러니 이달까지 꼭 열 달일세. 그래 이자까지 하면 20원이 넘네그리. 우선 벼 벼 섬은 날 줘야 하네. 그래도 내가 삼사 원은 못 받는 속일세. 그러구 비룻값과 장리쌀은 으레이 여기서 회계할 것이지…….”

유 서방을 돌아보았다.

“어서 저기서 일곱 섬만 가져오게. 그래도 나는 10여 원을 받지 못하는 셈일세. 그러나 할 수 있는가. 자네들도 농사를 해 먹고 살아가야겠으니 우리에게 오는 반 섬과 자네게로 가는 반 섬 합해서 한 섬은 내가 주는 것이니 그리 알게. 그것은 이번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 때문이어. 허허.”

유 서방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벼섬을 낚고 허다가 구루마에 실어 놓는다. 그들은 이제까지 깜박 잊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가 조수와 같이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다. ④ 그들은 벼짚단 위에 펄쩍펄쩍 주저앉았다. ⑤ 그때 첫째의 머리에는 풍헌 영감의 모양이 획 떠오른다.

입도 차압(立稱差押)*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래윗

동네를 미친 듯이 달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어보게 이런 법이 있는가, 벼를 베기도 전에…….”

그다음 말은 막히어 하지 못하였다.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하여 풍헌의 뒤를 따라 논까지 가 보았다. 논귀에 세운 조그만 나무판자에는 무슨 글인지 써 있었다.

풍헌은 그 나무쪽을 가리키며,

“글썸 집달리*라던가? 하는 양복쟁이가 이것을 꽃아 놓으면서, 벼를 베지 못한다구 허두면…….”

풍헌은 이렇게 말하며 누룩누룩한 벼 이삭을 바라본다. 첫째는 다가서며,

“누구의 빛을 얼마나 졌습니까?”

“아 덕호의 빛이지. 그것 좀 참아 달라구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야 뭐 있겠나! 전날 편지 배달부가 이런 것을 갖다가 주고 가두면. 그래 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고 두었더니, 글썸 글썸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누가 꿈밖에나 생각하였겠나.”

풍헌은 거지 안에서 다 해진 편지봉투를 꺼내어 보인다. 첫째 역시 그것을 한 자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래서 편지봉투만 이리저리 만지다가 풍헌을 주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타작마당에서 바로 벼를 빼앗기게 되어 억울했던 개똥이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첫째와 농민들이 몰려가 유 서방을 넘어뜨리고 실어 놓은 벼섬을 끌어내리지만, 곧 순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주재소로 끌고 간다. 개똥 어머니는 선처를 부탁하고자 덕호를 찾아가다.

개똥 어머니는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며,

“그저 한때 살려 줍시유, 네? 한때만 사정 봐줍슈.”

덕호는 기침을 하며 일어나서 자리로 몸을 가리고 앉았다.

“글썸 그놈들의 행세를 보아서는 분 나는 대로 용서 없이 고생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소위 면의 어른이라는 나로서 더구나 저런 늙은이들이 불쌍해서 그럴 수야 있는가.”

개똥 어머니는 너무 감격하여 소리쳐 울고 싶었다. 그리고 저런 후한 어른의 뜻을 몰라주는 개똥이와 그의 동무들이 끝없이 원망스러웠다.

“그저 살려 줍슈. 저를 봐서…….”

“응. 그런데 마침 오늘이 공일이니까 면에 출근도 안 하니 내 직접 주재소에 가 보리…… ㉠저희 놈들이 암만 그래도 몇십 년을 내 덕에 산 것이 아니겠나.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런 것을 두고 이름일세 그려. 허 ㉡거정 나두 손두 없는 사람이라 저희들을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어.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벼 한 섬을 거저 주지 않았나. 그런데 그놈이 그 은공을 몰라본단 말이어. 하필 올뿐인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왔지.”

“그까짓 죽일 놈들을 생각하실 게 있습니까. 그저 후하신 맘으로 이 늙은것을 한때 보아주셔야지유.”

“응. 그럼 돌아가게. 내 이따가 가 보리.”

개똥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덕호는 도로 자리에 누우며 이 놈들을 더 고생시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어 정신을 돌려주렸더니 ㉢날은 점점 추워 오고 어서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은 끝내야

[A] 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랄 수밖에 별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이 가을부터 미곡 통제안(米穀統制案)이 실시된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곡가도 오를 것이다. 어서 바빠 그 놈들의 빛도 현 곡가로 청산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곧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강경애, 「인간 문제」

* 입도 차압: 추수하기 전부터 벼를 압류함.

* 집달리: 집행관.

[1~2] <보기>는 윗글에서 바로 이어지는 뒷부분이다. 윗글과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어젯밤 주재소에서 자고 난 그들은 오늘 아침 덕호가 가서야 순사 부장의 단호한 훈시를 듣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놓여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나오는 길로 아침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곧 타작 마당으로 왔다. 그래서 어젯밤 널어놓은 짚단이며 나락 헤진 것을 쓸어 모아 놓고 한편으로는 도급기를 행행 돌렸다. 그들은 일을 하니 안 아픈 곳이 없었다. 팔을 놀리면 팔이 아프고 다리를 놀리면 다리가 아팠다. 그리고 허리를 굽힐 수도 없고

목을 임의대로 돌릴 수도 없었다. 하루쯤은 쉬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하였다.

그 때 덕호가 나왔다. 그는 쫄려서 피워 물고 단장을 짚었다. 그리고 명주 저고리 바지에 세루 조끼를 말끔말끔하게 입었다. 그들은 덕호를 보자 가슴이 울울해지며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리고 뭐라고 나무라지나 얹으려나 하는 불안에 찢찢매었다.

“어 자네들 어서 일들이나 잘하여… ㉠밥 많이 먹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말로 튼튼한 면민일세그러. 허허허 자네들은 나를 오해하지? 아마 어제의 일을 미루어 보더라도 말이어.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안 것일세. 나는 더구나 면의 어른이란 지위에 앉아 가지고 ㉡자네들의 이로우를 위하여 애쓰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닌 가.”

1. 윗글과 <보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추리할 수 있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덕호는 소작인을 대상으로 수확물을 부당하게 착취했다.
- ② 개똥이와 농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 ③ 순사 부장은 덕호와 친한 사이로 그의 편의를 돌보아 준다.
- ④ 개똥이와 농민들이 지주인 덕호에게 대항한 사건이 있었다.
- ⑤ 덕호는 자신을 선한 마을 어른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다.

2. ㉠~㉡ 중, 덕호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독백하듯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빈번하게 교차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 ⑤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4. 윗글에 나타난 시·공간적 배경 및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당은 농민들의 노동이 결실을 맺는 공간이자, 수탈이 이루어지는 이중적 공간이다.
- ② 어둠은 농민들이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는 고단함을 나타낸다.
- ③ 나락 더미는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빛을 갉아야 하는 부담의 대상이다.
- ④ 주재소는 농민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희망의 공간이다.
- ⑤ 덕호의 집은 농민이 생존을 위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 년 농사의 결실인 수확물을 눈앞에 둔 농민들의 벅찬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 ② ㉡: 수확량이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빛 문제로 인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소작농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④ ㉣: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해 휴식을 취하려는 행동이다.
- ⑤ ㉤: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의 유사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고난도 6. [A] 부분에 나타난 ‘덕호’의 심리와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농민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들의 생계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농민들을 풀어주기로 결심하고 있다.
- ③ 농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미곡 통제안이 실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 ④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민들의 노동력과 빚 상환이 필요함을 계산하고 있다.
- ⑤ 주재소의 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의 석방을 요청하러 가고 있다.

[7~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 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네 마당질은 끝이 났다. 어둠 속으로 뿌영계 솟아오른 나락 더미! 나락 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이 흥분이 되어 있었다.

유 서방과 ㉠덕호가 나왔다. 유 서방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 가지고 나왔다. ㉡땃버리는 대두를 들고 나락 더미 앞으로 가서 나락을 손으로 헤쳐 가면서 말을 되었다.

“한 말이요는 가세요우.”

㉢땃버리는 그 둥글둥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 가지고 소리 곡조로 마디마디를 꺾어 돌렸다. 뒤미처 싹르륵 하고 섬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벼알 소리! 그들의 가슴은 어떤 충동으로 스르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의식 간에 그들은 눈을 썩, 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며 바짝바짝 다가들었다. 그때마다 옆의 동무는,

“이 사람아, 넘어지겠구먼!”

허허 웃으며,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한 섬, 두 섬, 석 섬, 벅섬은 차례로 묶여 놓인다. 그들은 제각기 몇 섬이 날까? 하는 호기심에 묶여 놓은 벅섬과 나락 더미를 번갈아 비교해 보았다.

땃버리가 마지막 말수를 되어 벅섬에 부으며,
“열닷 섬 닷 말이요는 가세요우.”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르려는 듯이 그렇게 흥이 나서 음성을 내뿐었다.

“열닷 섬 닷 말! 잘은 났다!”

가슴을 즐기고 섰던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중얼거

렸다. 땃버리는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개똥의 어깨를 탁 쳤다.

“이 사람아 한턱내야 되리. 올 농사는 자네네만큼 된 사람이 없으리!”

“암, 허허.”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흘금 덕호를 쳐다보았다. 덕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가 가만히 섰는 것을 보아 만족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곡식이 잘 나지 못한 때면 덕호는 잔걱정을 하며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잘 거두지를 못하였느니 미리 베다가 먹었느니 하고 야단을 치곤 하였던 것이다.

유 서방은 구루마를 갖다 대고 벅섬을 광광 실었다. 그들도 벅섬을 받들어 올려놓으며,

“무겁다! 참 벅 한 섬이 이다지도 무거운가!”

덕호가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였다. ㉤덕호는 어둠속으로 쫄려만 뻘뻘 빨면서 섰더니,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회계 끝내고 말지! 후일에 다시 쓰더라도…… 응? 자네 빚내 온 돈이 얼마인지?”

개똥의 말을 들어 보려고 덕호는 이렇게 물었다.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빚 말을 내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가 마침이 말을 듣고 보니 전신의 맥이 탁 풀렸다.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던 덕호는 저놈이 빚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벅섬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았다.

“자네 15원 내 온 것이 간 정월달이 아닌가. 그러니 이달까지 꼭 열 달일세. 그래 이자까지 하면 20원이 넘네그리. 우선 벅 녀 섬은 날 쥐야 하네. 그래도 내가 삼사 원은 못 받는 속일세. 그러구 비릇값과 장리쌀은 으레이 여기서 회계할 것이지…….”

유 서방을 돌아보았다.

“어서 저기서 일곱 섬만 가져오게. 그래도 나는 10여 원을 받지 못하는 셈일세. 그러나 할 수 있는가. 자네들도 농사를 해 먹고 살아가야겠으니 우리에게 오는 반 섬과 자네게로 가는 반 섬 합해서 한 섬은 내가 주는 것이니 그리 알게. 그것은 이번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 때문이어. 허허.”

유 서방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벅섬을 깡 하고 저다가 구루마에 실어 놓는다. 그들은 이제까지 깡박 잊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가 조수와 같이 밀려드

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벗짚단 위에 펄럭펄럭 주저앉았다. 그때 첫째의 머리에는 ㉠풍헌 영감의 모양이 획 떠오른다.

입도 차압(立稱差押)*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래윗동네를 미친 듯이 달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보게 이런 법이 있는가, 벼를 베기도 전에…….”

그다음 말은 막히어 하지 못하였다.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하여 풍헌의 뒤를 따라 논까지 가 보았다. 논귀에 세운 조그만 나무판자에는 무슨 글인지 써 있었다.

풍헌은 그 나무쪽을 가리키며,
“글쎄 집달리*라던가? 하는 양복쟁이가 이것을 꽃아 놓으면서, 벼를 베지 못한다구 허두먼…….”

풍헌은 이렇게 말하며 누룩누룩한 벼 이삭을 바라본다. 첫째는 다가서며,

“누구의 빛을 얼마나 졌습니까?”

“아 덕호의 빛이지. ㉡그것 좀 참아 달라구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야 뭐 있겠나! 전날 편지 배달부가 이런 것을 갖다가 주고 가두면. 그래 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고 두었더니, 글쎄 글쎄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누가 꿈밖에나 생각하였겠나.”

풍헌은 거지 안에서 다 해진 편지봉투를 꺼내어 보인다. 첫째 역시 그것을 한 자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래서 편지봉투만 이리저리 만지다가 풍헌을 주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타작마당에서 바로 벼를 빼앗기게 되어 억울했던 개똥이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첫째와 농민들이 몰려가 유 서방을 넘어뜨리고 실어 놓은 벗섬을 끌어내리지만, 곧 순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주재소로 끌고 간다. 개똥 어머니는 선처를 부탁하고자 덕호를 찾아간다.

㉢개똥 어머니는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며,
“그저 한때 살려 줘시유, 네? 한때만 사정 봐줍슈.”

덕호는 기침을 하며 일어나서 자리로 몸을 가리고 앉았다.

“글쎄 그놈들의 행세를 보아서는 분 나는 대로 용서 없이 고생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소위 면의 어른이라는 나로서 더구나 저런 늙은이들이 불쌍해서 그

럴 수야 있는가.”

개똥 어머니는 너무 감격하여 소리쳐 울고 싶었다. 그리고 저런 후한 어른의 뜻을 몰라주는 개똥이와 그의 동무들이 끝없이 원망스러웠다.

“그저 살려 줘슈. 저를 봐서…….”

“응. 그런데 마침 오늘이 공일이니까 면에 출근도 안 하니 내 직접 주재소에 가 보리…… 저희 놈들이 암만 그래도 몇십 년을 내 덕에 산 것이 아니겠나.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런 것을 두고 이름일세그러. 허 거정 나두 손두 없는 사람이라 저희들을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어.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벼 한 섬을 거저 주지 않았나. 그런데 그놈이 그 은공을 몰라본단 말이어. 하필 올뿐인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왔지.”

“그까짓 죽일 놈들을 생각하실 게 있습니까. 그저 후하신 맘으로 이 늙은것을 한때 보아주셔야지우.”

“응. 그럼 돌아가게. 내 이따가 가 보리.”

㉣개똥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덕호는 도로 자리에 누우며 이놈들을 더 고생시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어 정신을 들려주렸더니 날은 점점 추워 오고 어서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은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랄 수밖에 별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이 가을부터 미곡 통제안(米穀統制案)이 실시된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곡가도 오를 것이다. 어서 바빠 그놈들의 빛도 현 곡가로 청산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곧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강경애, 「인간 문제」

* 입도 차압: 추수하기 전부터 벼를 압류함.

* 집달리: 집행관.

7. 윗글을 통해 당시 농촌의 현실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주는 고리대금과 각종 비용 전가를 통해 소작농을 수탈하였다.
- ② 소작농은 풍년이 들어도 빛을 갚고 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 ③ 입도 차압과 같은 법적 조치는 지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 ④ 농민들은 부당한 대우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지주와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 ⑤ 지주는 소작농에게 비룻값, 장리쌀 이자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징수하였다.

고난도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보기>

강경애의 「인간 문제」는 식민지 시대의 구조적 모순을 다룬다. 작가는 지주 계급을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면서도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하는 위선적인 인물로 형상화한다. 반면, 농민들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처음에는 순응하다가 점차 현실을 자각하고 저항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돈’과 ‘곡식’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계급 간의 지배와 피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 ① 덕호가 농민들에게 ‘반 섬과 자네게로 가는 반 섬 합해서 한 섬’을 주는 것을 생색내는 모습에서 지주의 위선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개똥 어머니가 덕호를 ‘후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며 읍소하는 모습은 아직 구조적 모순을 깨닫지 못한 농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덕호가 ‘배은망덕’을 운운하며 자신을 농민들의 ‘어버이’처럼 포장하는 것은 자신의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군.
- ④ 농민들이 벼섬의 무게를 느끼며 ‘무겁다!’라고 외치는 것은 수확의 기쁨을 넘어 지주에게 바쳐야 할 공물의 무게에 대한 압박감을 의미하기도 하겠군.
- ⑤ 개똥이가 덕호와의 회계 과정에서 전신의 맥이 풀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은 지배 질서에 저항하여 승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군.

9. ㉠~㉥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땃버리’가 공정한 분배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선출한 대표임을 보여준다.
- ② ㉡: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다.
- ③ ㉢: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덕호의 몰인정한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④ ㉣: 덕호의 위선적인 태도를 간파하고 비꼬기 위해 취한 과장된 행동이다.
- ⑤ ㉥: 농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교화의 의도이다.

10. 윗글의 ‘첫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똥이네 수확물을 덕호가 뺏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었다.
- ② 농민들이 낙담하여 주저앉을 때 과거 풍헌 영감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 ③ 입도 차압을 당했을 당시 풍헌 영감이 처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 ④ 편지 봉투에 적힌 글을 읽고 풍헌 영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 ⑤ 현재의 수탈 상황과 과거의 기억을 연결하고 있다.

11. 윗글에서 ‘덕호’가 농민들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 ① 나락 더미 앞에서 곡식이 잘 나지 못한 때를 걱정하며 야단치는 모습
- ② 빚 계산을 하며 이자와 비룻값을 정확하게 따지는 모습
- ③ 개똥 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자애로운 어른으로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잇속을 챙기는 모습
- ④ 입도 차압을 실행하기 위해 집달리를 논으로 보낸 모습
- ⑤ 타작마당에서 권련을 피우며 농민들의 작업을 지켜보는 모습

12. 윗글의 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덕호는 개똥이에게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기다려주는 등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② 땃버리는 구성진 목소리로 수확량을 알리며 타작마당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③ 개똥이는 자신의 처지를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덕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선다.
- ④ 풍헌 영감은 집달리의 행동을 비판하며 첫째에게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 ⑤ 개똥 어머니는 덕호의 말을 끊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한다.

13. 윗글의 ㉠~㉤ 중 <보기>의 ‘참새’와 유사한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黃雀何方來去飛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一年農事不曾知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鰥翁獨自耕耘了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밷는데,
 耗盡田中禾黍爲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 이제현, 「사리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개똥이와 농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덕호 앞에서 찢찢매는 것은 소작인으로서 지주에게 가지는 두려움이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 ④ 윗글에서 덕호는 개똥이의 수확물을 부당하게 착취하였다. 이로 인해 개똥이와 농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며 대항한 사건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주재소에 잡혀갔음을 알 수 있다.

③ 덕호가 찾아가 소작인들을 순순히 풀어 주게 하는 것으로 보아, 순사 부장과의 친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⑤ 윗글에서 덕호는 개똥어머니에게 ‘저희들을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하던 말이어.’, ‘자네들의 이로움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닌가.’ 등 겉으로는 선한 마을 어른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놈이 빛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벗섬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았다.’, ‘이놈들을 더 고생시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어 정신을 들려주렸더니’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2. 정답 ③

㉠에서는 ‘부득이’가 말해 주듯, 사실은 자신에게 대항한 소작인들을 주재소에 잡아넣어 고생시키고 싶지만 마당질을 끝내기 위해서 놓아주고자 하는 덕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①, ②, ④, ⑤ ㉡, ㉢, ㉣, ㉤은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관대한 모습을 보이려는, 선한 마을 어른으로 포장한 모습에 해당한다.

3. 정답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서술자는 농민들의 흥분, 개똥이의 불안감, 덕호의 내면적 계산과 위선 등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② 윗글에서 서술자 ‘나’는 등장하지 않으며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독백하듯 서술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으므로 관찰자 시점이 아니다.

④ 첫째의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나 주제 의식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지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⑤ 윗글에서 전기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으며 해결 과정을 환상적 분위기로 그리고 있지 않다.

4. 정답 ④

윗글에 따르면 ‘주재소’는 순사들이 덕호의 부당한 탈취로 인해 억울해하는 개똥이와 농민들을 끌고 간 곳이며, 개똥 어머니는 덕호에게 선처를 부탁하려 하지만 덕호는 ‘이놈들을 더 고생시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어 정신을 들려주렸더니 날은 점점 추워 오고 어서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은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랄 수밖에 별수가 있나! ~ 어서 바빠 그놈들의 빛도 현 곡가로 청산하여야 겠다’와 같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마당에서 타작이 이루어지지만, 곧바로 빛 잔치가 벌어지므로 적절하다.

②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는 농민들의 고단함을 드러낸다.

③ 나락 더미를 보며 흥분하지만 결국 빛으로 넘어가는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⑤ 개똥 어머니가 덕호에게 선처를 비는 공간이므로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5. 정답 ④

㉠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라기보다는 직전에 덕호가 수확량의 대부분을 빛과 이자로 가져가 버린 상황에서 느낀 허탈감과 절망감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에서 수확한 나락 앞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원초적인 기쁨을 ‘술에 취한 듯’하다고 표현했다.

② ㉡는 벼알 소리를 들으며 수확량에 대한 기대를 품는 모습이다.

③ ㉢에는 덕호가 빛 이야기를 꺼낼까 봐 전전긍긍하는 개똥이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⑤ ㉞는 자신의 벼를 뽑기는 상황에서 과거 풍헌 영감의 입도 차압 사건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6. [정답] ④

[A] 부분에서 덕호는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과 미곡 통제안 실시로 곡가가 오르기 전에 현 곡가로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계산하여 농민들을 풀어주려 하고 있으므로 이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농민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매력적인 오답]**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타작 마무리와 빚 청산이라는 실리가 주된 이유이다.

③ 미곡 통제안을 이용하여 빚을 유리하게 받아내려는 것이지 탕감하려는 것이 아니다.

⑤ 덕호는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어' 주려했다는 점에서 주재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정답] ④

윗글의 중략 줄거리 부분에 농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곧바로 순사들에게 끌려가 주재소에 갇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주와의 관계를 역전시켰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저항이 좌절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① 덕호는 이자, 비룻값 등을 명목으로 수확물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② '올 농사는 자네네만큼 된 사람이 없으리'라고 할 정도로 풍작이었으나, 빚 잔치 후 남는 것이 거의 없는 현실이 드러난다.

③ 첫째의 회상에서 벼를 베기도 전에 압류하는 입도 차압이 지주의 횡포 수단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⑤ 덕호는 개똥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가져가라고 지시한다.

8. [정답] ④, ⑤

④ 이야기 맥락상 농민들이 '무겁다!'라고 외치는 것이, 벼섬이 곧 덕호에게 빼앗길 대상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

다.

⑤ 개똥이가 덕호의 빚 계산 요구에 맥이 풀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야기 맥락상 저항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수탈한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양을 주면서도 베푸는 척하는 덕호의 모습은 위선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개똥 어머니는 덕호의 본심을 모른 채 그를 후한 사람으로 여기며 굴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덕호가 '저희들을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어.'와 같이 착취 관계를 가족 관계인 양 포장하는 것은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기만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9. [정답] ③

㉞의 '그것 좀 참아 달라구 하는' 것은 맥락상 생활고로 인해 빚 탕감을 늦춰달라는 부탁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을 저버리고 '입도 차압'을 한 덕호의 면모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땃버리'는 수확량을 재는 역할을 하지만, 맥락상 덕호 측의 입회하에 진행되므로 공정한 분배를 위한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덕호가 궤련을 피우는 것은 농민들을 감시하거나 자신의 잇속을 계산하는 초조함 또는 거만함을 드러내는 행동이지 감사의 의미가 아니다.

④ 개똥 어머니는 진심으로 덕호에게 빌고 있으므로 비꼬는 행동이 아니다.

⑤ **[매력적인 오답]** 덕호가 말하는 '세상의 법'은 자신의 권력과 지배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힘을 의미하며, 진정한 시민적 교화와는 거리가 멀다.

10. [정답] ④

윗글에서 '첫째 역시 그것을 한 자 알아볼 리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② 첫째는 유 서방이 개똥이네가 수확한 벼섬을 구루마에 싣는 모습을 보고 풍헌 영감의 일을 떠올리므로 적절하다.

③ 과거 회상 장면에서 풍헌 영감이 입도 차압을 당해 당황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⑤ 현재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수탈을 보고 과거의 입도 차압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11. 정답 ③

덕호는 개똥 어머니에게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여’라고 말하는 등 자애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놈들의 행세를 보아서는 분 나는 대로 용서 없이 고생을 시키겠지만’, ‘마당질은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랄 수밖에 별수가 있나!’, ‘곡가도 오를 것이다’라며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모습에서 덕호의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다.

①, ②, ④, ⑤ 덕호의 탐욕스럽거나 권위적인 면모를 보여주지만, ‘겉으로는 선한 척,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는 위선적 이중성이 직접적으로 대비되어 나타난 부분은 ③이다.

12. 정답 ②

땃버리는 ‘한 말이요는 가서요우’와 같이 동글동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 소리 곡조로 흥을 돋우며 수확량을 알린다. 이는 농민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매력적인 오답] 덕호는 ‘여기서 다 회계를 끝내’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 ③ 개똥이가 자신의 처지를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풍헌 영감은 ‘이런 법이 있는가’라며 탄식할 뿐, 저항을 촉구하지는 못한다.
- ⑤ 개똥 어머니는 덕호에게 굶실거리며 읍소할 뿐, 말을 끊거나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지는 못한다.

13. 정답 ①

<보기>의 ‘참새’는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권력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윗글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대상은 개똥이네가 수확한 벼섬을 수탈해가는 ㉠ ‘덕호’라고 볼 수 있다.

②,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